

기출의 수[秀]법

2025_09 윤리와 사상

분석서 구성

- 용어 정리

*사상적 입장: 해당 사상가가 동의할 입장

*공통적 입장: 둘 이상의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입장

*차별적 입장: 한 사상가는 동의, 나머지 사상가는 비동의할 입장

[Comment] 주요 사상가 정보, 선지에서 봐야 할 포인트 혹은 해야 했던 생각, 필자가 생각하는 난이도.

[정답 선지] 이 선지가 정답인 이유.

[오답 선지] 이 선지가 오답인 이유, 당연하게 오답인 선지는 설명을 생략함.

[Tips] 해당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하면 좋은’ 생각.

- 활용 방법

1. 인쇄하여 책자 형태로 중철한다.
2. 앞부분의 기출 모의고사를 푼다.
3. 시험지 바로 뒤의 빠른 정답으로 채점한다.
4. 틀린 문제, 짝어서 맞은 문제 등을 뒷부분의 해설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선지를 판단했어야 하는지 확인한다.
5. 날개 부분의 Tip을 보고 기출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린다.
6.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여 다른 기출에도 적용해본다.

(정답률 출처: 메가스터디)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心齋] 만물을 평등하게 관조해야 한다.
- ②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③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나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
- ④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본성을 변화[變化]시켜야 한다.
- ⑤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든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
 을: 개선론이란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 지성을 장려한다.

(나)

- <보 기>
- ㄱ. A: 미리 정해진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가?
 - ㄴ. B: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
 - ㄷ. B: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 ㄹ. C: 도덕적 인간은 선택지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천하에 도가 행해지면 예약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예약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을: 도는 늘 무위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왕이 그것을 잘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자라난다.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장차 이름 없는 질박함[樸]으로 진정시킬 것이다.

- ① 갑: 예는 사회 제도를 제외한 개인적 행위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 ② 갑: 인자(仁者)는 타인을 사랑할 뿐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통치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분에 맞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
- ④ 을: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현자(賢者)를 숭상해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을: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게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역시 오직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 ① 갑: 도덕적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갑: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
- ④ 을: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 ⑤ 갑과 을: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이다.

5.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연(因緣)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空) 아닌 것이 없다.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생멸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을: 식(識)의 전변(轉變)은 모두 허망한 분별이다. 그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唯識]이다.

- ① 갑: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므로 생성과 소멸은 실재한다.
- ② 갑: 중도는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무에 속한 극단도 아니다.
- ③ 을: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세계는 모두 의식과 독립적이다.
- ④ 을: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식을 제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구체적 사물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므로 서로 구별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감, 율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감: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 가서 물속에 비친 상(像)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p> <p>율: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에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p>
(나)	

<보 기>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ㄷ. B: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고대 서양 사상이 감, 근대 서양 사상이 율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감: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식탁 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맛있는 요리가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율: 한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할 때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 기>

ㄱ. 감: 참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
 ㄴ. 율: 많은 불만족을 동반하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쾌락이 있다.
 ㄷ. 감과 율: 쾌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중국 유교 사상이 감, 율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감: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성(性)은 마음의 본체가 되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하여 없는 곳이 없다.

율: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마음이 텅 비고 신령하여 밝게 지각하는 것을 이른바 본연의 양지(良知)라고 한다. 이러한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意)이라고 한다.

- ① 감: 성은 마음의 본체이므로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② 감: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③ 율: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④ 율: 치지는 양지를 각각의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⑤ 감과 율: 마음을 벗어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는 없다.

9. 고대 서양 사상이 감, 사회사상이 율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감: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생겨났지만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율: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보 기>

ㄱ. 감: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율: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
 ㄷ. 율: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ㄹ. 감과 율: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신은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는 실체의 양태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

- ① 신적 본성은 자연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②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된다.
 ③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④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 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1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보내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람의 마음속에 덩어리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 맹자께서 “생명[生]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의 의가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또한 『예기』에서 “봄과 가을에는 예악(禮樂)을 가르친다.”라고 하였는데, 예가 마음속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배우겠는가? 이처럼 인의예지의 이름은 반드시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념하시게.

- ①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발휘해야 선악을 택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 ② 인간의 욕구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삶의 추동력이 될 수 없다.
- ③ 영지(靈知)의 기호는 상황에 따라 선이나 악으로 호를 수 있다.
- ④ 수오지심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가 성립될 수 있다.
- ⑤ 인간의 자유 의지[自主之權]로 인해 행위의 공과(功過)가 생겨난다.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선의지는, 우둔한 머리와 결단력 없음과 같은 타고난 결함으로 인해 또는 질병과 가난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적 목적을 관철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는 최대한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의지로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이 가치에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아무 것도 덧붙이거나 덜어낼 수 없다.

- ①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 ②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 ③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한다.
- ④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
- ⑤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정언 명령에 합치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자유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

을: 자유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늘릴 수밖에 없다.

- ① 갑: 선의의 이타적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 ② 갑: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에 비례한다.
- ③ 을: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 보장된다.
- ④ 을: 자유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 ⑤ 갑과 을: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一]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법(法)은 진실하며 허공과 다르므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心]이라 한다.

을: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定)과 지혜[慧]를 떠나지 않는다. 본체(體)는 작용[用]에 의존하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고,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보 기>

- ㄱ. 갑: 다양한 종파 간 갈등을 화해하여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 ㄴ. 을: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혜 아닌 선정만이 요구된다.
- ㄷ. 을: 부처의 마음(禪)은 마음으로 전하므로 스승(禪師)이 필요하다.
- ㄹ. 갑과 을: 깨달음을 위해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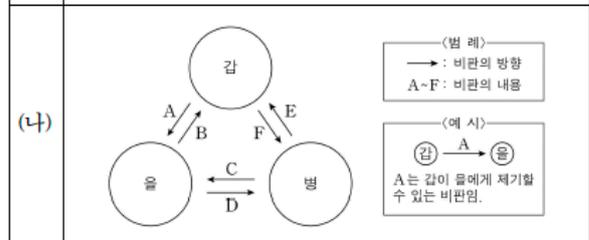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정부 기능의 확대는 소비 성향 및 투자 유인의 조절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을: 정부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직접 간섭하여 개선을 시도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의 임무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병: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그들은 이것과 함께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다.



- ① A: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없음을 간파한다.
- ② B: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유효 수요 창출이 불가능함을 간파한다.
- ③ C와 E: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영속되어야 함을 간파한다.
- ④ D: 대규모 실업은 고용 시장에 대한 방임에서 비롯됨을 간파한다.
- ⑤ F: 노동자의 소외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기인함을 간파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중세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만일 신이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한다면, 그 최고선을 구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이다. 지상에서 선한 생활에 따르는 평화를 누릴 때에도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천상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불행에 불과하다.
 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는 행복은 오직 신성(神性)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것으로 이끌어 주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종교적 덕이라 부른다.

- ① 갑: 자신의 힘만으로 참된 선을 실현하면 지복에 이를 수 있다.
- ② 갑: 선의 원천은 신이지만 자유 의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
- ③ 을: 도덕 활동과 지적 활동만으로는 초자연적 행복에 이를 수 없다.
- ④ 을: 믿음·소망·사랑의 덕은 자연적 본성만으로도 성취 가능하다.
- ⑤ 갑과 을: 신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없다.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품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낯선 사람들의 행복은 공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 ①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 ② 이성 단독으로 두려움의 정념을 통제하여 정서 안정에 기여한다.
- ③ 쾌락에 반응하는 자연적 본성은 인간의 도덕 원리가 될 수 없다.
- ④ 품성에 대한 평가는 그 품성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다.
- ⑤ 개인의 승인 감정만으로도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는 데 충분하다.

18.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사회사상이자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에도 세 부분이 있다. 철학자는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는 생업에 힘쓴다. 이 세 부류 모두에 질체가 있어야 정의로운 국가이다.
 을: 초승달 모양의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지만 누구나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로우며,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보 기>
 가. 갑: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다.
 나. 갑: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다. 을: 국가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라. 갑과 을: 이상 국가에서는 시민들 간에 신분의 구분이 없다.

-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나, 라
-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라

19.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가. 갑: 사단은 이(理)가 발함에 기가 올라타고(乘) 있는 것이다.
 나. 을: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도덕 감정(四端)이 드러날 수 있다.
 다. 을: 기의 국한성(氣局)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理通) 때문이다.
 라. 갑과 을: 이와 기는 구체적 사물에서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20.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道)라 하고,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器)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시대에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록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守心正氣) 후 물으니,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라고 하였다.

- X: 후천개벽(後天開闢)을 강조하는 정도
- Y: 신용 종교로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
- Z: 유교적 신분 질서의 변혁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빠른 정답

#	정답	출제 포인트	정답률
1	5	유교_맹자	93%
2	4	혼합_사르트르, 듀이	59%
3	4	혼합_공자, 노자	77%
4	3	혼합_소크라테스, 벤담	90%
5	2	불교_용수, 세친	80%
6	3	고대_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53%
7	5	혼합_에피쿠로스, 밀	71%
8	4	유교_주희, 왕수인	57%
9	2	국가론_아리스토텔레스, 로크	78%
10	5	합리주의_스피노자	43%
11	5	유교_정약용	67%
12	1	의무론_칸트	63%
13	3	자유론_벌린, 비롤리	59%
14	3	불교_원효, 지눌	67%
15	1	자본주의_케인스, 하이에크, 마르크스	87%
16	3	중세_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85%
17	4	경험주의_흠	81%
18	1	이상 사회_플라톤, 모어	87%
19	3	유교_이황, 이이	33%
20	2	근대 한국_동도서기론, 동학	66%

#유교_맹자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心齋] 만물을 평등하게 관조해야 한다.
- ②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③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나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
- ④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본성을 변화[化性]시켜야 한다.
- ⑤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Comment] 유교 사상가 맹자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맹자가 주장한 이상적 삶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는 5번 선지를 무난히 고르면 되는 문제였다.

[정답 선지]

⑤ 맹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맹자는 선한 마음인 ‘사단’을 확충하여 의로운 행위를 실천, 즉 ‘집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설명 생략)

#혼합_사르트르, 듀이

2.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기에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p> <p>을: 개선론이란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 지성을 장려한다.</p>
(나)	<p>The flowchart starts with a box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leading to decision diamond A. From A, '예' leads to decision diamond B, and '아니오' leads to decision diamond C. From B, '예' leads to a box '갑의 입장'. From C, '예' leads to a box '을의 입장'. A legend indicates: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보 기>

ㄱ. A: 미리 정해진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가?
 ㄴ. B: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
 ㄷ. B: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ㄹ. C: 도덕적 인간은 선택지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실존주의 사상가 사르트르(갑)와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2번부터 고난도 유형인 순서도가 출제되었으며, A는 듀이에 대한 사르트르의 차별적 입장, B, C는 각각의 사상적 입장을 골라야 했다. 또한 ㄷ 선지의 '항상'이라는 어휘는 포함 관계를 건드리니 조심하도록 하자.

[정답 선지]

- ㄴ.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선고된 존자라고 보며, 자유로 인해 선택의 불안에 빠지지만 자유로운 선택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실존이 회복된다고 보았다.
- ㄹ. 듀이의 사상적 입장이다. 듀이는 도덕의 핵심을 진보하는 과정으로 보며, 이에 따라 도덕적인 인간은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선택지는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오답 선지]

- ㄱ. 사르트르와 듀이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부정했다.
- ㄷ.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지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주체적 선택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Tips] 순서도

순서도 유형은 '**화살표가 갈라지는' 파트에 해당하는 선지**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갑은 '예', 을은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은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차별적 입장**으로, 두 사상가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단, 3명의 사상가가 나올 경우에는 화살표가 닿는 두 사상가만 먼저 판독해야 한다.

#혼합_공자, 노자

3.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천하에 도가 행해지면 예약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예약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을: 도는 늘 무위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왕이 그것을 잘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자라난다.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장차 이름 없는 질박함[樸]으로 진정시킬 것이다.

- ① 갑: 예는 사회 제도를 제외한 개인적 행위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 ② 갑: 인자(仁者)는 타인을 사랑할 뿐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통치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분에 맞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
- ④ 을: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현자(賢者)를 숭상해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Comment] 유교 사사가 공자(갑)와 도가 사사가 노자(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는 두 사상가의 ‘도’에 관한 입장과 정치 사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선지도 마찬가지이다. 난이도 자체는 쉬웠지만 유교 사사가인 공자 또한 ‘도’를 언급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정답 선지]

④ 노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노자는 무위의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인위적인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① 공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공자는 ‘예’를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인적 행위에 국한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공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공자는 어진 사람인 ‘인자’는 선한 사람을 사랑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분별적 사랑을 실천한다고 보았다.

③ 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자는 통치자가 사회적 규정된 명분이 아닌 자연적인 무위의 본성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자는 현자를 숭상하는 등의 인위는 국가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혼합_소크라테스, 벤담

4. 고대 서양 사상이자, 근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을: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게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역시 오직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 ① 갑: 도덕적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갑: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
- ④ 을: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 ⑤ 갑과 을: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이다.

[Comment] 고대 그리스 사상가인 소크라테스와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흔히 많은 사상가 조합이 나와서 당황할 법도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매우 쉬웠다. 공통 요소가 크게 많지는 않은 조합이라 선지 구성도 매우 평이했다.

[정답 선지]

③ 벤담의 사상적 입장이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이 인간 행위의 원리이자 사고의 근원이라고 보았다.¹

[오답 선지]

- ①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인식하기 이전에도 도덕적 진리는 존재한다고 보았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유덕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 ④ 벤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가 개인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⑤ 벤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벤담은 각자의 행복이 아닌 이해 당사자의 쾌락 극대화가 최상의 도덕적 과제라고 보았다.

¹ 애초에 제시문에서도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Made by Geunro

#불교_용수, 세친

5.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연(因緣)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空) 아닌 것이 없다.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생멸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을: 식(識)의 전변(轉變)은 모두 허망한 분별이다. 그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唯識]이다.

- ① 갑: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므로 생성과 소멸은 실재한다.
- ② 갑: 중도는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무에 속한 극단도 아니다.
- ③ 을: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세계는 모두 의식과 독립적이다.
- ④ 을: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식을 제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구체적 사물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므로 서로 구별된다.

[Comment] 중관 사상의 용수, 유식 사상의 세친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골자를 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으며,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1번 선지에 낚여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외 선지의 난이도는 평이했기에, ‘의외의 복병’까진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정답 선지]

② 용수의 사상적 입장이다. 용수는 중도의 개념이 유와 무의 양 극단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용수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용수는 생성과 소멸을 포함한 모든 현상에는 독립적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 ③ 세친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세친은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의식 뿐이라고 보았으므로, ‘나’를 포함한 모든 세계는 의식에 의존적이라고 보았다.
- ④ 세친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세친은 ‘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 ‘식’을 지혜로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용수와 세친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두 사상가 모두 구체적 사물에는 고유한 성질인 ‘자성’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대_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 가서 물속에 비친 상(像)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p> <p>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에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p>
(나)	

<보 기>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ㄷ. B: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Comment] 고대 그리스 사상가인 플라톤(갑), 아리스토텔레스(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고난도 유형인 밴다이어그램인데다가, 난이도가 꽤 높았던 문제로, 모든 선지가 밀도가 높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개념 학습 당시 배우지 않았다는 패닉 보다는, 논리와 도식으로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했다.

[정답 선지]

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세계층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자족적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로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자족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ㄹ.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차별적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좋음 그 자체(이데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 존재에 개별적 좋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ㄱ.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기개,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 이성에 따를 수 있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적 부분을 따른다고 보았다.

ㄷ.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플라톤의 차별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좋음 그 자체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닐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실천적 지혜는 누구나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Tips] 밴다이어그램

밴다이어그램 문제에서 **교집합 부분은 공통적 입장, 나머지 부분은 차별적 입장에** 해당한다. 단일한 사상가의 사상적 입장을 묻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모든 사상가가 해당 선지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A의 B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 답일 때)

1.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2.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3.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혼합_에피쿠로스, 밀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식탁 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맛있는 요리가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을: 한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할 때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 기>

ㄱ. 갑: 참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
 ㄴ. 을: 많은 불만족을 동반하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쾌락이 있다.
 ㄷ. 갑과 을: 쾌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Comment] 고대 그리스 사상가 에피쿠로스(갑)와 공리주의 사상가 밀(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공교롭게도 7번 자리에 선지가 3개인 문제가 6평과 마찬가지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6평 7번과는 다르게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었다.

[정답 선지]

- ㄱ.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인 자연적이면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이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ㄴ. 밀의 사상적 입장이다. 밀은 육체적으로는 많은 불만족을 동반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질적으로 뛰어난 쾌락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에피쿠로스와 밀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쾌락의 추구를 이상적 삶의 목표라고 보았다.

#유교_주희, 왕수인

8.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성(性)은 마음의 본체가 되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하여 없는 곳이 없다.

을: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마음이 텅 비고 신령하여 밝게 지각하는 것을 이른바 본연의 양지(良知)라고 한다. 이러한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意]이라고 한다.

- ① 갑: 성은 마음의 본체이므로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 ② 갑: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③ 을: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 ④ 을: 치지는 양지를 각각의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 ⑤ 갑과 을: 마음을 벗어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는 없다.

[Comment] 성리학 사상가인 주희(갑)와 양명학 사상가인 왕수인(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당연히 윤사의 고난도 주제답게 오답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하게도 1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28%나 된다. 특히 주희-왕수인 문제에서는 어휘와 표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다.

[정답 선지]

④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이다. 왕수인은 ‘격물치지’ 중 ‘치지’가 양지를 극진히 함으로써 각 사물마다 온전히 양지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주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주희는 성을 마음의 본체라고 보았지만, 정을 포괄하는 것은 ‘성’이 아니라 ‘심’이라고 보았다.²
- ② 주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주희는 인욕을 제거하는 것에는 긍정하지만, 사람마다 천리인 본연지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았다.
- ③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왕수인은 양지가 내린 판단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앎으로서 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았다.
- ⑤ 주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주희는 각 사물마다 이치인 ‘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Tips] 주희-왕수인의 출제 포인트

기출에 자주 출제된 주희와 왕수인이 출제되는 문제의 제시문 또는 선지의 출제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 1. ‘천리’에 대한 입장
- 2. ‘지’와 ‘행’에 대한 입장
- 3. ‘격물치지’에 대한 입장

² 굳이 말하면 ‘심통성정’이 되겠다. 성리학에서 심성론은 단골 출제 포인트니 예민하게 반응하자.

#국가론_아리스토텔레스, 로크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생겨났지만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을: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보 기>—
ㄱ. 갑: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을: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
ㄷ. 을: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아리스토텔레스(갑)와 사회계약설 사상가 로크(을)의 국가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6평의 오답률 1위 문제였던 홉스와 로크의 국가론 문제보다는 쉽게 출제되었으며 로크의 사회계약설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정답 선지]

ㄱ.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 본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범위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ㄷ. 로크의 사상적 입장이다. 로크는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에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ㄴ. 로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각자의 자연권에 관련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로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로크는 국가의 목적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권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Tips] 사회계약설의 기본 도식

사회계약설 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기본 도식은 다음과 같다.

- 홉스: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
 - > 생명권을 제외한 권리를 하나의 절대 권력에 양도
 - > 전제 군주정
- 로크: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
 - > 공평한 자연법 집행관이 없음,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
 - > 자연법 집행권 및 입법권을 국가에 신탁
 - > 대의 민주정
- 루소: 평화로운 자연 상태
 - > 사회 상태에서의 사유 재산제로 인한 불평등 출현
 - > 인민을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둠
 - > 직접 민주정

#합리주의_스피노자

1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신은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는 실체의 양태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

- ① 신적 본성은 자연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 ②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된다.
- ③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 ④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 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Comment] 합리주의 사상가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6평의 스피노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오히려 오답률은 더 높았다. 4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정답인 5번을 선택한 비율과 거의 비슷한데, 용어에 국한되어 선지를 본다면 낯설 수 밖에 없었고 모든 선지를 정확한 논리에 입각해 판단해야 했다.

[정답 선지]

⑤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스피노자는 세계가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신적 본성이 곧 자연을 운행하는 자연법칙이라고 보았다.
- ②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무한한 실체인 신의 양태는 세계에 있는 특정한 조건 없이 모든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라고 보았다.³
- ③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양태가 존재 방식이 유한하지만 그 수는 무한히 많다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신 또한 자연법칙에 의해 운행되는 존재로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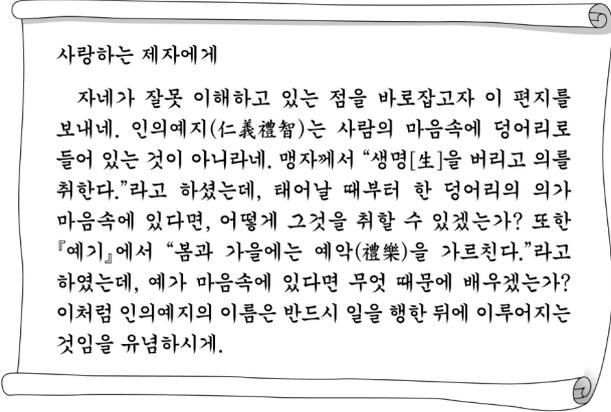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⁴

³ 제시문에서도 ‘무한히 많은 것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⁴ 2번 선지가 ‘특정 조건 하의 존재’와 ‘모든 존재’ 간 포함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유교_정약용

1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발휘해야 선악을 택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 ② 인간의 욕구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삶의 추동력이 될 수 없다.
- ③ 영지(靈知)의 기호는 상황에 따라 선이나 악으로 흐를 수 있다.
- ④ 수오지심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가 성립될 수 있다.
- ⑤ 인간의 자유 의지[自主之權]로 인해 행위의 공과(功過)가 생겨난다.

[Comment] 유교 사상가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10번 스피노자 문제보단 쉬웠지만 이 문제 역시 어려운 편이며, 역시 용어에 국한되어 선지를 본다면 3, 4번 선지가 함정이 될 수 있었다. (물론 ‘합정’이라는 워딩을 쓰기에 살짝 순한 맛이긴 하지만)

[정답 선지]

⑤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다. 정약용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주지권을 통해 행위의 공과가 생겨 책임지는 삶을 강조했다.

[오답 선지]

- ①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정약용은 선악을 택하는 자주지권이 부여되어야 선을 좋아하는 영지의 기호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정약용은 선을 향한 욕구는 도덕적 실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라고 보았다.
- ④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정약용은 수오지심 등의 사단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성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⁵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

⁵ 1번 선지가 ‘자주지권’과 ‘영지의 기호 발휘’의 전후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의무론_칸트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선의지는, 우둔한 머리와 결단력 없음과 같은 타고난 결함으로 인해 또는 질병과 가난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적 목적을 관철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는 최대한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의지로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이 가치에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아무 것도 덧붙이거나 떨어낼 수 없다.

- ①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 ②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 ③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한다.
- ④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
- ⑤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정언 명령에 합치한다.

[Comment] 의무론 사상이 칸트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최근 기출에서 칸트 문제에 힘을 빼는 느낌이었지만 이번 9평에서는 다시 칸트의 사상적 입장에 대해 밀도 있게 출제되었다. 당연히 윤리 과목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가인 만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정답 선지]

①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다. 칸트는 선의지가 선한 행위를 하게끔 이끄는 의지로, 행위에 대상에는 있지 않고 행위를 의욕하는 것 자체에 있다고 보았다.⁶

[오답 선지]

- ②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선의지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의무가 이성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았다.
- ③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이라는 의무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지, 의무의 실행 방법은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도 그것이 선의지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정언명령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⑤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되더라도 결과의 유용성이나 자연적 경향성에서 도출된 목적이라면 정언명령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 1. 단순 부정 표현
-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⁷

⁶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논리를 천천히 생각해보자면, 칸트는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강조하므로,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 자체에 더 방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선지가 헛갈리더라도 1번을 오답이라 볼 수는 없다.

⁷ 4번과 5번 선지가 '모든 행위'와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의 포함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자유론_벌린, 비롤리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자유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써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
을: 자유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늘릴 수밖에 없다.

- ① 갑: 선의의 이타적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 ② 갑: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에 비례한다.
- ③ 을: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 보장된다.
- ④ 을: 자유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 ⑤ 갑과 을: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Comment]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갑)과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리(을)의 자유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마이너한 주제치고 정답률이 낮았는데, 특히 5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20%가 넘었다. 아무리 '~만', '오직 ~'의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상식적 맥락에서 선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답 선지]

③ 비롤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비롤리는 법에 의한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며 시민적 자유는 모두 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 선지]

(설명 생략)⁸

⁸ 5번 선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벌린은 타인과의 자유의 충돌을 막고 자유의 동등함을 위해 국가가 법에 의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고, 비롤리 또한 법에 의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불교_원효, 지눌

14. 한국 불교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一]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법(法)은 진실하며 허공과 다르므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心]이라 한다.
을: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定]과 지혜[慧]를 떠나지 않는다. 본체[體]는 작용[用]에 의존하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고,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 <보 기> —

ㄱ. 갑: 다양한 종파 간 갈등을 화해하여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ㄴ. 을: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혜 아닌 선정만이 요구된다.
ㄷ. 을: 부처의 마음[禪]은 마음으로 전하므로 스승[祖師]이 필요하다.
ㄹ. 갑과 을: 깨달음을 위해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Comment] 불교 사상이자 원효(갑)와 지눌(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률이 그리 높은 편도 낮은 편도 아니었지만 5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20%대로 높은 편이었다. 원효의 원융회통 사상을 묻는 ㄱ 선지에서 ‘단일한’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했다. (물론 기출에도 자주 언급된 함정이었다.)

[정답 선지]

ㄷ. 지눌의 사상적 입장이다. 지눌은 부처의 마음인 ‘선’이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보았고, 이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교)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
ㄹ. 원효와 지눌의 공통적 입장이다. 원효는 언어의 유한성을 넘어 대립을 초월한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했고, 지눌 또한 언어에만 집착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균형 있게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ㄱ. 원효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원효는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을 화해해 단일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ㄴ. 지눌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지눌은 사물의 실상과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균형 있게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_케인스, 하이에크, 마르크스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정부 기능의 확대는 소비 성향 및 투자 유인의 조절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p> <p>을: 정부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직접 간섭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의 임무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p> <p>병: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어 남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그들은 이것과 함께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다.</p>
(나)	

- ① A: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유효 수요 창출이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 ③ C와 E: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영속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대규모 실업은 고용 시장에 대한 방임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 ⑤ F: 노동자의 소외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기인함을 간과한다.

[Comment] 자본주의 사상가 케인스(갑), 하이에크(을)와 사회주의 사상가 마르크스(병)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비판 유형 특성상 약간 복잡할 수 있으나 무난하게 풀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였다.

[정답 선지]

① 하이에크에 대한 케인스의 차별적 입장이다. 케인스는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② 케인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케인스는 시장의 자율성과 함께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유효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았다.
- ③ 마르크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과 국가가 소멸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대규모 실업이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 ⑤ 마르크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이 노동자의 소외와 자본가와와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Tips] 비판 유형

비판 유형의 취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적 입장 찾기’이다. 비판 유형의 선지는 ‘A는 B가 X를 간과한다고 보았다.’는 형식인데, X는 B에 대한 A의 차별적 입장이 된다. 이때 선지가 오답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 1. X가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 B는 X를 간과하지 않았다.
- 2. X가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 B는 X를 간과하지 않았다.
- 3. X가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 A가 할 말이 아니다.

#중세_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16.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만일 신이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한다면, 그 최고선을 구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이다. 지상에서 선한 생활에 따르는 평화를 누릴 때에도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천상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불행에 불과하다.

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는 행복은 오직 신성(神性)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것으로 이끌어 주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종교적 덕이라 부른다.

- ① 갑: 자신의 힘만으로 참된 선을 실현하면 지복에 이를 수 있다.
- ② 갑: 선의 원천은 신이지만 자유 의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
- ③ 을: 도덕 활동과 지적 활동만으로는 초자연적 행복에 이를 수 없다.
- ④ 을: 믿음·소망·사랑의 덕은 자연적 본성만으로도 성취 가능하다.
- ⑤ 갑과 을: 신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없다.

[Comment] 중세 기독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갑)와 아퀴나스(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워낙 난이도는 매우 쉬웠으며, 본 문제 외에도 종교에 관한 사상가가 나왔을 때 신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정답 선지]

③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아퀴나스는 도덕적, 지적 활동과 함께 신의 은총이 있어야 초자연적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선의 실천과 함께 신의 은총이 있어야 지복(초자연적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과 자유의지 모두 신의 창조물이라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퀴나스는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신앙을 실천하며 성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험주의_흠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품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낯선 사람들의 행복은 공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 ①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 ② 이성 단독으로 두려움의 정념을 통제하여 정서 안정에 기여한다.
- ③ 쾌락에 반응하는 자연적 본성은 인간의 도덕 원리가 될 수 없다.
- ④ 품성에 대한 평가는 그 품성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다.
- ⑤ 개인의 승인 감정만으로도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는 데 충분하다.

[Comment] 경험주의 사상가 흠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최근 기출에서 흠이 꽤나 어려운 난도로 출제된 것에 비해 이번에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지난 6평에 이어 흠이 보는 이성의 역할에 대해 물어 보고 있다.

[정답 선지]

④ 흠의 사상적 입장이다. 흠은 품성에 대한 평가가 공감에 의한 것이라고 보며, 이는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오답 선지]

- ① 흠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흠은 이성은 도덕 판단이 아닌 일반적 판단에는 의지와는 다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흠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흠은 이성이 단독으로 두려움과 같은 정념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③ 흠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흠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공감 능력이 도덕 원리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 ⑤ 흠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흠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승인 감정을 통해 도덕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보았다.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⁹

⁹ 1번 선지가 '도덕 판단'과 '일반적 판단'의 포함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이상 사회_플라톤, 모어

18.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사회사상이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에도 세 부분이 있다. 철학자는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는 생업에 힘쓴다. 이 세 부류 모두에 절제가 있어야 정의로운 국가이다.
을: 초승달 모양의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지만 누구나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로우며,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보 기>

ㄱ. 갑: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다.
ㄴ. 갑: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ㄷ. 을: 국가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이상 국가에서는 시민들 간에 신분의 구분이 없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Comment] 플라톤(갑)과 모어(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와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대략적인 도식만 잘 알아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선지]

ㄱ.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절제의 덕이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며, 무절제한 시민은 정의로운 사회 내 어떤 계급에도 속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ㄷ. 모어의 사상적 입장이다. 모어는 유토피아 내에서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되어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노동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답 선지]

(설명 생략)

#유교_이황, 이이

19.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맹자가 가리킨 사단은 기(氣)에서 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기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라면 더 이상 사단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가 가리킨 사단은 칠정 가운데서 그 선한 정(情)만을 뽑아 내어 지목한 것입니다. 즉, 칠정 밖에 따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 기>

ㄱ. 갑: 사단은 이(理)가 발함에 기가 올라타고(乘) 있는 것이다.
 ㄴ. 을: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도덕 감정[四端]이 드러날 수 있다.
 ㄷ. 을: 기의 국한성(氣局)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理通) 때문이다.
 ㄹ. 갑과 을: 이와 기는 구체적 사물에서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Comment] 성리학 사상가 이황(갑)과 이이(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본 시험지의 오답률 1위(67%)였으며, ㄷ 선지에서 기의 국한됨과 이의 통함에 대한 전후 관계를 건드리는 사태가 등장하며 굉장한 혼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5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정답률과 매우 비슷한 수준이며, 만약 ㄷ 선지가 헛갈렸다면 적어도 정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됐다.

[정답 선지]

- ㄴ. 이이의 사상적 입장이다. 이이는 사단 또한 ‘기’에서 비롯된 칠정 중 한 부분으로, ‘기발’의 개념이라고 보았다.
- ㄹ. 이황과 이이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성리학 사상가로서 구체적 사물에서 이와 기가 분리되지 않는 ‘이기불상리’ 개념을 인정했다.

[오답 선지]

- ㄱ. 이황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이황은 사단이 ‘이발’은 맞지만 ‘기’가 올라타는 개념이 아니라 ‘기’가 발한 ‘이’에 따르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 ㄷ. 이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이이는 기가 국한되는 까닭은 이의 보편성 때문이 아니라 기에 맑고 탁함 등의 형태가 있는 ‘유형유위’의 개념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⁰

¹⁰ 그렇다고 ‘이통’과 ‘기국’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이는 ‘이기불상리’ 개념을 강조하며 “기가 하나의 근본인 것은 이의 통 때문이요, 이가 만수인 것은 기의 국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깊게 선지에서 언급할 리는 없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근대 한국_동도서기론, 동학

20.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道)라 하고,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器)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시대에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록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守心正氣] 후 물으니,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라고 하셨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omment] 근대 한국 사상인 동도서기론(가)과 동학(나)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았으며, 자주 근대 한국 사상의 도식만 잘 알고 있었어도 쉽게 풀었을 것이다.

[정답 선지]

② 동학은 동도서기론에 비해 반외세,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족성을 강조하는 Y축과 유교적 신분 질서의 변혁을 강조하는 Z축의 정도가 높고, 신흥 종교로서 새로운 세계가 실현된다는 X축의 정도가 높다.

[오답 선지]

(설명 생략)

[Tips] 근대 한국 사상의 기본 도식

중요도는 낮지만 항상 한 번씩은 출제되는 근대 한국 사상 중 위정척사파, 동도서기론, 동학의 기본 도식은 다음과 같다.

1. 위정척사파: 반외세, 친봉건적 입장
2. 동도서기론: 친외세, 친봉건적 입장
3. 동학: 반외세, 반봉건적 입장